



전국 최강의 아마추어를 가리는 '제9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결선이 19일과 20일 서울 상암 e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등 8월 말 e스포츠의 열기가 뜨거워진다. 지난해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식.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8월 e스포츠 이벤트...더위보다 더 Hot해

최고 아마추어 KeG 결선 19일 개막 26일 LCK 서머 결승전...월드컵 직행



여름 더위가 뜨거웠던 기세를 조금씩 누르고 있지만, e스포츠의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8월에 아마추어와 프로 빅 이벤트들이 잇따라 열려 e스포츠 팬을 흥분시키고 있다. 먼저 이번 주말 국내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가리는 대회가 열린다. '제9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대통령배 KeG) 결선'이 19일과 20일 서울 상암 e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KeG는 지역

e스포츠 균형 발전,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아마추어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최초의 전국단위 아마추어 대회다. 2009년 대통령배로 승격됐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대회에 참가한다. 정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중 11년 동안 매년 열린 것은 세계에서 KeG가 유일하다. 이번 전국 결선에는 총 226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정식종목 우승 선수(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준우승 팀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3위 팀 및 시범종목 우승팀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이 주어진다. 종합우승은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돌아가며

우승 트로피와 함께 대통령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대회기간 동안 모범을 보인 지자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아마추어 선수 및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모을 예정이다. 프로대회 열기도 타오른다.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종목으로 한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서머 포스트 시즌이 시작된다. 삼성 갤럭시와 SK텔레콤 T1이 격돌하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도 15일 넥스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KT블스터와 1라운드 승자가 맞붙는 2라운드는 19일 서울 상암동 e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결승 직행에 성공한 통주게이밍과 2라운드 승자가 대결하는 LCK 서머 결승전은

26일 오후 5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최종우승팀에는 상금 1억원(총상금 2억9500만원)과 함께 가을 중국에서 열린 예정인 '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에 직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결승전은 티켓 1차분이 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LCK 서머가 그 어느 때보다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명승부가 이어지며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정규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야 비로소 정규 리그 1위와 결승전 직행의 주인공이 가려졌고, 리그 막판까지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한편 결승 티켓 2차 판매분은 21일 오후 4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백화점 라운지에서 음료를 즐기는 무슬림 고객. 롯데백화점이 잠실 에비뉴에 무슬림 고객을 위한 기도실을 업계 최초로 마련하는 등 무슬림 시장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이 활발하다. 사진 | 뉴스1

롯데백, 무슬림 마케팅 활발

9월, 10월 '할랄 레스토랑 워크'도 진행

무슬림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백화점도 이들을 위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16일 잠실점 에비뉴에 유통업계 최초 '무슬림 기도실'을 마련,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도움을 얻어 마련한 49.6㎡ 규모의 기도실은 세족실을 갖추고 공간도 남성과 여성을 분리했다. 또한 쿠란, 예배 카펫, 그리고 예배 방향을 알려주는 '키블라' 등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등과 연계해 본점과 잠실점에서 국내 주요 관광지 및 국제공항 등에 있는 30여개의 기도실과 국내 할랄 레스토랑 위치가 표기된 지도 리플렛을 이달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본점과 잠실점 식당가 중 '무슬림 친화 식당'도 선정한다.

이밖에 16일부터는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의 글로벌라운지에서 무슬림 관광객에게 할랄 인증을 받은 다과를 제공하며, 사은행사장에서는 마스크팩과 1만원 선불카드 등의 감사품을 증정한다. 무슬림 마케팅은 하반기에도 강화해 9월과 10월 '할랄 레스토랑 워크'를 진행하고,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이나 화장품을 연계해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다.

전세계 무슬림이 이용하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할랄' 관련 시장은 2019년 2조5370억 달러까지 성장해 세계식품시장의 2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무슬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8만명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무슬림 관광객의 매출이 2016년보다 10%P 이상 높아진 12.5%를 기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NH농협카드, 새 모델 유승호 발탁

반듯한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 반영

NH농협카드가 새 모델로 배우 유승호(사진)를 발탁했다. NH농협카드측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보이면서도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알려진 유승호 씨가 모델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NH농협카드는 9월부터 유승호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새로운 모델 기용과 함께 쇼핑·렌탈 제휴카드 3종도 내놓았다. 'NH윌원 쇼핑&아모레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최대 10% 청구할인 및 커피전문점·베이커리·아이스크림·CGV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NH윌원 렌탈&코웨이 카드'와 'NH윌원 렌탈&백센타이어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매달 렌탈료 1만~3만원 청구 할인된다. 3종 카드 공통서비스로 전국 농협주유소·하나로마트 이용 시 추가 포인트가 적립된다.

정정욱 기자



롯데카드, 'DIY 가구 나눔 활동'

친환경 원목 재료 벤치 의자 제작

롯데카드가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에서 'DIY 가구 나눔 활동(사진)'을 펼쳤다. 롯데카드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 20여명은 복지관의 식탁을 교체하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벤치 의자를 제작했다. 복지관 내 책장이 부족해 쌓아뒀던 도서 정리를 위한 대형 책장도 만들었다. 김중국 롯데카드 기획부장은 "복지관 내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친환경 원목 재료에 내구성도 좋은 벤치 의자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초반 돌풍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시장 '게임 체인저' 될까

기대와 우려 교차, '찾잔 속 태풍' 시각도 '히트엔터' 고객 다수, 리스크 관리 불안 금융권 서비스 개선 자극 긍정적 평가



카카오뱅크가 출범 16일 만에 228만좌 물파 및 수신 1조 2190억원, 여신 8807억원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자, 선발주자인 케이뱅크는 예금금리 인상으로 반전을 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원투펀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기존 금융권에 대한 공격적 행보를 거듭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금융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초반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 판도를 바꿀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게 전반적인 업계의 평가. 시중은행 자리까지 위협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찾잔 속 태풍'으로 그칠 거란 시각도 많다.

●카카오뱅크 접속 지체, 인터넷은행 구조적 취약점 노출

회의적인 시각의 배경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영업스타일을 장기적으로 고수하기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영업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8분 만에 뚝딱'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출범 첫날부터 유일한 접속 창구인 모바일 앱 접속 오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응대 부실과 대출신청 지연 등 준비 미비에 대한 고객 불만이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측은 "대출 신청이 과도하게 몰려 유관기관의 처리 용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사과하며 제2고객센터 및 서버 증설로 사내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업에서 서비스 관리능력에 의문점이 찍혔고,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원투펀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지만, 시중은행 자리까지 위협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넣은 케이뱅크의 '네이버페이 체크카드(왼쪽)'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게 됐다. 한 이용자는 "카카오뱅크 대출을 신청하려면 '무한 클릭해야 한다'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하루종일 전화기만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은행이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은산분리 규제 해결없인 성장 불투명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규제도 큰 숙제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다. 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사급고화 하는 것을 막으려 만든 조항인데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출 수요가 연간 목표액을 뛰어넘으며 물리자 7월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신용등급별 한도를 축소할 데 이어 향후 대출 상품의 한도와 금리조정을 수시로 할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들처럼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이어가려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각각

5000억원, 10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함으로써 덩치 키우기로 맞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이 현재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케이뱅크 주주에 우리은행(10%)이 포함된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도 결국 기존 금융사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을 만들려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부담이다.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낮게 주다보니 자칫 연체를 상습으로 이어져 은행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고인 물' 금융시장에 신선한 충격 높이 평가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의 충성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최근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서비스 수준이나 브랜드 신뢰보다는 금리 등 철저

히 이익에 기반해 유입된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조건에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는 '히트엔터' 고객"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중은행이 해외송금 수수료료를 낮추거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들은 언제든지 금리나 서비스 조건에 따라 옮길 수 있다.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나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시중은행의 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가 일단 '고인 물'로 평가되던 금융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며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계해 모바일 플랫폼을 다시 손보거나 비대면 상품 강화,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지만, 초반 시선풀기에 성공하며 금융권에 경쟁을 촉발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